

# 전남도, 북극항로시대 선점 위한 여수·광양항 거점항만 육성 추진위원회서 육성전략 연구용역 공유·실행 방향 논의

전라남도가 북극항로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 여수·광양항을 대한민국 남해안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육성하는 전략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도는 6일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여수·광양항 북극항로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항만 경쟁력 강화 방안과 거점항만 육성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는 전남도와 광양시, 여주시, 여수광양항만공사, 학계와 항만·물류 전문가 등이 참석해 '여수·광양항 북극항로 거점항만 육성전략 연구용역'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구체적 실행 방향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에너지 허브 항만 육성 ▲친환경 병커링 기지 조성 ▲중대형 수리조선 산업 육성 ▲배후 물류산업 및 항만 인프라 확충 등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해 여수·광양항을 북극항로 시대 남해안 핵심 거점항만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광양제철소와 여수석유화학단지 등 중국발 공급과잉과 원료·에너지 비용 상승 등으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북극항로 자원을 활용한 원료·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물류비 절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북극해 벌크화물(원유·LNG·철광석 등) 수입을 위한 시범운항 지원 방안 발굴과 함께 첨단산업 소재 가공 허브 구축 및 여수석유화학단지의 원료 수급 안정을 위한 구체적 상생 전략을 마련해



## 전남도, 수도권 협력여행사와 관광객 유치 머리 맞대 25개사 참여... 무안공항 재개항 대비 협력방안 중점 논의

전라남도가 여행업계 활성화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 모색을 위해 6일 서울 용산역에서 수도권 협력여행사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이 공동주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관광객 유치 실적 및 마케팅 능력 검증을 거쳐 지난 달 선정된 전남도 협력여행사 25개사가 참여했다.

전남도는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을 당부하고, '2026 전남 섬 방문의 해'와 관련해 섬 기반 여행, 주민과 함께하는 섬 트래킹·캠핑 등 프로그램을 설명하며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미식·웰니스·정원·사찰 등 주력 여행상품, 팻트레블(반려견 동반여행)·파크골프 힐링여행 등 신규 트렌드 여행상품에 대한 관광객 유치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무안공항과 관련해서는 조속한 재개항을 위한 전남도 차원의 노력과 정부동향을 상세히 안내하는 한편 재개항에 대비한 노선 확대 전략 및 인바운드·아웃바운드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오미경 전남도 관광과장은 "전남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함께 뛰는 협력여행사를 직접 만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여행업계의 소중한 의견과 획기적인 제안을 정책에 반영해 전남 관광이 한 단계 더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채 기자

##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탄소중립 실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할 차량을 오는 9일부터 19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올해 모집 대수는 5378대로, 지난해보다 2235대(71.1%) 확대해 모집한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해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면 감축거리 또는 감축률에 따라 특전(인센티브)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다.

## 자동차 온실가스 감축하면 최대 10만원 지급

광주시, 9일부터 19일까지 참여차량 5378대 선착순 모집

신청 자격은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 자동차이며, 사업용 자동차와 친환경 자동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는 제외한다.

특전은 과거 누적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가입일~2026년 10월31일)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3143대가 참여해 1832대가

## 1억3300만원의 특전을 받았다. 이는 온실가스 667tCO<sub>2</sub>-eq를 감축한 것으로, 30년 생 소나무 7만3000여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다.

나병준 기후대기정책과장은 "광주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중 자동차 부문이 약 32%를 차지한다"며 "올해는 모집대수를 대폭 확대한 만큼 유류비를 절감하고 현금 특전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영길 기자

## 전라남도는 논 이용률 제고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2026년 전략작물직불금'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접수를 시작, 동계는 4월 3일까지, 하계는 5월 29일까지 받는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서 밭살용 벼 대신 밀, 두류,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는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품목별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대상 품목을 확대했다.

주요 개선 사항은 하계작물 중 옥수

## 2026년 동·하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하세요

지원단가 인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온라인(농업e지) 접수

수과 개의 지원단가를 ha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 하계조사료는 50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신규로 수급조절용 벼를 재배하면 ha당 500만 원, 알팔파·울무는 250만 원, 수수는 24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겨울철에 밀·조사료와 여름철에 두류, 가루쌀, 조사료(알팔파 포함)를

## 농촌통합정보시스템(농업e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남도는 2025년 전략작물직불금으로 613억 원(전국의 32%)을 3만 8천 명의 농업인에게 지급했다. 이 가운데 동계는 2만 7천 명에게 215억 원, 하계는 1만 1천 명에게 398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수급조절용 벼' 재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금과 별도로 자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통해 ha당 50만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신종팔 기자

## 전남도, 18일까지 생활수준·복지 등 사회조사

1만 9천116개 표본 가구 대상 조사원 방문 방식 추진

전라남도는 오는 18일까지 지역 1만 9천116개 가구를 대상으로 '2026년 전라도 사회조사'를 실시한다.

사회조사는 도민의 생활수준, 사회적 인식,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변화를 파악하고,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항목은 가구·가족, 소득·소비, 노동, 교육, 보건·의료 등 총 11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도민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사회적 문제와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는 도내 조사 대상 가구를 선정해 방문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는 사전 교육을 받은 인원으로 구성되며, 조사 과정에서 수집되는 모든 정보는 통계적으로만 활용된다.

조사 결과는 전남도 누리집(분야별정보·통계정보·전라도 사회조사)을 통해 8월 공표될 예정이며, 도와 시군의 정책 수립과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순명도 전남도 정책기획관은 "사회조사는 도민의 생활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척도이며,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우인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자연속의 가족미를 곡성에서